

세분화된 타겟포교로 불심 유혹

홍법사, 영유아수기대법회 한국문화행사 봉행

타겟마케팅(Target marketing)은 어떤 제품군의 시장을 세분화해 선별한 특정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많은 마케팅기법 중에서도 특정 소비계층이나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소비자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성공노하우로 손꼽힌다. 이러한 타겟마케팅이 포교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동원 이사장)는 2월 20일 영유아수기대법회와 21일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문화행사를 잇달아 봉행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영유아수기대법회는 심산 스님을 계사로 태아 2명 및 영유아 26명 등 28명이 부처님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다.

이날 법회는 부모와 영유아들이 직접 부처님 전에 올린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 보현행원, 발원문,



2월 20일 부산 홍법사에서 영유아수기대법회 모습.

관정 수기 및 범명 수계 등이 진행됐다.

특히 관정 수기에 쓰인 성수는 불·법·승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 집수해 의미가 더욱 깊다.

또한 포교의 대상이 사람을 오가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비불자들이라는 편견을 과감히 뒤집었다. 오히려 영유아기 시절 부모와 가족의 손에 이끌려 사찰에서 부처님과의 선근인

연을 심어줘, 성장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불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된다.

21일 열린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문화행사는 139회째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홍법사의 대표 포교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날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연날리기'를 주제로,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꼬리연을 직접 만들어 날리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3월 서예, 5월 전통등

만들기 등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색다른 한국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10년째를 맞은 프로그램이지만 참가 외국인 중 절반 가까이 이날 홍법사에 처음 방문한 것도 특징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특성상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는 탓도 있지만 관광 목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종교교이 짙을수록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대웅보전 앞에서 대형 VCR과 국제포교사들의 유창한 영어설명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꼬리연을 만든 후, 절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하늘 높이 연을 날렸다.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법당 예절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관해 알리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주지스님과 국제포교사들의 진심 어린 태도와 체험 과정 속에서 한국 불교에 대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분화된 타겟포교 전략으로 포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와 외국인들의 발길이 사찰로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창립 15주년을 맞은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재)가 2010학년도 입학 시즌에 맞춰 15명 학생들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일념장학회는 2월 23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모광선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광선원 종영스님 및 이태범 부산대의과대학 학원생, 하동현 동명대학교 신입생 등 학인 스님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불자가정 자녀들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이영재 이사장은 "한국에는 여러 장학재단이 있지만 일념장학회는 어머니들이 직접 주기에 '엄마의 빚 줄' 과도 같다"며 "장학생 모두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공부에 더욱 전념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축사를 통해 "훗날 훌륭한 실업인이 되어 함께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재단 설립 15주년을 맞은 일념장학회는 300여 학인스님 및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쉬운 현대적 용어로 수행법 익혀요

최근 참선수행을 향한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에선 참선으로 10년 째 청소년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시민선원이 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오션뷰(舊 오션타워)에 위치한 우곡선원(원선원장 장명화)은 선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각 학교와 직장직능단체 등



부산 우곡선원에서 청소년들이 참선을 체험하고 있다.

시 알아야 할 실참 위주로 진행된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의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반 직장인 수강생이 대폭 늘어나, 강의시간을 오후 8-10시까지로 늦췄다.

이 외에도 연 2회씩 마련되는 교원직무연수와 직장·직능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우곡선원' 심성개발교육, 외국인인을 위한 참선 교육, 청소년 인성교육인 증프로그램 '마음둥산 꾸미기'에 알맞은 참선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이다.

'우곡'은 한자 소 우(牛)자와 골 곡(谷)자를 써서, 평생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죽어서도 육보시를 하는 소의 자비로운 성품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곡선원은 장명화 보살이 1992년 첫 참선수행프로그램인 '놓고 비우고 버리기'를 시작으로 1996년 경기 분당 시민선방, 1997년 경기 산본 시민선방, 1998년 서울 양재동에 이어 2000년 부산 해운대에 개원했다. 2002년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문화공보부의 법인 인가를 취득해 순수하게 재가불자들이 운영 중이다. 현재 정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됐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교원직무연수 기관 등으로 선정됐다.

가장 인기 있는 '마음둥산 꾸미기-참선교육과정'은 보편적인 경전강의를 배제하고,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우곡의 선' '선 기공제조' '날숨호흡의 정의' 등 참선수행에 있어 반드시

“죽어야 비로소 산다”

참선안심법회 월암 스님 감로법문 펼쳐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행복선수행학교는 2월 21일 제4회 참선안심법회 중 첫 번째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암 스님(사진)이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쳐 눈길을 모았다.

이날 법회는 주지 하림 스님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신도회장 인사말, 클리어마인드 합창단의 축하, 월암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하림 스님은 "대중들에게 참선을 가르치며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들어서길 발원했었는데, 시내 사찰에서는 좀처럼 만나 뵈기 힘든 월암 스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1년 내내 명강의를 듣게 돼 감사하



다"고 말했다.

월암 스님은 "조사스님들은 습관적으로 쉽게 바깥 경계에 빠져버리는 중생들이 본래 면목을 깨우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죽어야 비로소 산다'고 가르쳤다"며 "본래부처를 잃어버리고 경계에 빠져버린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일 것"이라고 법문했다.

참선안심법회는 미타선원(주지 하림)과 행복선수행학교(교장 월암,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가 선 수행의 대중화와 선공 진작을 위한 마련했다.

법회는 2월 21일-3월 7일 매주 일요일 행복선수행학교에서 봉행되며, 3월 7일에는 해국 스님(종주 석종사 금복선원장)의 참선안심법회가 열린다.

박지원 기자

종교지도자들 화합·상생 목소리 커져

범어사 휴휴정사서 템플스테이 열고 종교갈등 해소

MB정부의 종교편향 우려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부산지역 7대 종교지도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종교인평화포럼(상임회장 정여)과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2월 22-23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열고, 3·1절 기념 합동기도회를 공동개최 하는 등 종교간 갈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교인평화포럼 템플스테이에는 불교 1명, 개신교 8명, 천도교 3명 등 12명의 이웃종교인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사찰예절 및 발우공양법을 습득하고 아침예불, 선기공, 발우공양, 계명암 산행 등 절집의 하루를 체험하고 돌아갔다.

방영식 목사는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

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정여)는 3·1절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교지도자 10여 명과 부산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에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3·1절 기념 합동기도회를 통해 종교간 갈등해소에 나섰다.

박지원 기자

행·복·의·문·을·여·는

무무사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친족·친지 등이 애도와 비통속에서 장례를 치루고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여 영안으로 추모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무릇 뿌리 없거나 나무가 없고, 조상 없거나 자손이 있을 수 없다. 자손의 단명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무무사에서는 불교의식으로 기제사를 모셔드립니다.

- 기제사 특별 : 50만원
- 기제사 보통 : 35만원

무무사에서는 사찰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수를 차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불자님 가정에 제사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정성이 담긴 사찰 음식 공양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시길 기원하며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 보시금은 무무사 건립불사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상) 보시금 45만원

(중) 보시금 38만원

(하) 보시금 28만원

※ 모든 제사상에 조기, 포가 추가됩니다(과일은 계절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무무사 문의전화 : 종무소 (031)487-3117(대표전화)